

산업분야 정보서비스를 위한 매체개발*

김 용 근**

<목 차>

- | | |
|--------------------|-------------------|
| I. 서론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정보센터 |
| II. 산업분야의 정보수집 경로 | IV. 결론 |
| III. 산업지원기관의 정보서비스 | Abstract |

I. 서 론

많은 산업체가 자력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이용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업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에는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도서관이 주제전문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맡고 정보이용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지원을 하도록 한 정책,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여러 편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에 관련된 연구보고서¹⁾의 생산 등은 산업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직접적인 정보정책이다.

* 본 연구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1) 행정개혁위원회, 산업기술정보유통체제의 확립방안, 1978. ; 조유근 외, 한국학술정보 유통체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1982. ; 최성진 외, 전국도서관자원 네트워크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1984.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1989. ; 시스템공학센터,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계획, 1990.

또한 산업활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유형의 산업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의 소재처까지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정보지원 정책이 있다. 그러한 제도로는 국가기관이 바로 산업분야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도 있다. 전자의 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 당시부터 경영 및 기술분야의 전문가인 지도사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체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²⁾ 후자의 사례는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산학 협동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협의회 구성’ 프로그램, 대학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테크노파크’ 계획 등이 있다.³⁾ 이러한 프로그램도 대학의 연구인력과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정보를 산업현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체에 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도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는 금오공과대학과 협력하여 ‘구미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산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⁴⁾ 이 정보센터에는 345개 중소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정보검색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원은 산업기술정보원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결합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양적 증대현상은 정보선정과 해석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는 정보공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정보 액세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서지정보로는 산업체의 정보빈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외국에서 생산되는 기술 및 경영정보가 우리나라의 산업체에서도 이용하기에

2)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994. pp. 38-40.

3) “공대교수이론-현장기술접목” 동아일보 (1993. 9. 15) ; “교수들 산업체 실습, 중소기업에서 전공 이론 현장접목” 조선일보 (1993. 12. 15) ; “산학관연협력” 조선일보 (1993. 8. 11) ; “산학연계 컨소시엄대학 지정” 동아일보 (1993. 8. 29)

4) “구미 산업기술정보센터” 동아일보 (1995. 12. 21)

적합한지가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산업체의 생산기술과 설비정도에서부터 인력수준, 판매능력까지 포함된 우리의 산업능력에 적실한 산업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산업분야는 어떤 당면문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요구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 및 기술전문가들이 산업활동에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경험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체에 전문가의 지원이란 실제로 어려운 과제이므로 적합한 정보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산업정보유통체제의 확립이 현단계에서 마련되어야 된다. 국내외의 산업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산업분야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전달 매체로는 인쇄형 자료로 또는 데이터 베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체가 정보서비스기관에 대한 요구는 우선 필요한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보요구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보지만 항상 이용가능한 정도는 약하다는 것이다.⁵⁾ 외국의 정보관리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량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각종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센터의 수집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정보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적합성 판정에 있어서 산업체의 기준은 보다 엄격하다. 따라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량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산업체의 구체적이고 세분된 정보요구에 대하여 정보서비스기관은 원문헌에서 추출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여 그것으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보청구에 대하여 응답은 청구사항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몇 편

5) 김승재, "산업계의 기술혁신 애로 및 저해요인 분석", 기술관리, 제106호 (1992. 6), pp. 18-26. : 대구상공회의소, 지역소재 기업부설연구소의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보고서, 1993. 정보의 필요성은 특정 과제의 개발에서만이 아니고 연구시설의 확보, 생산설비의 구입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의 문헌리스트를 제공하는 정도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체는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원으로 부터 여러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많은 산업체들이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들 경로를 이용할 환경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산업체 정보이용자가 말하는 정보량의 부족은 그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소스를 찾아본 결과라기 보다는 정보서비스기관에 정보조사 의뢰를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한 후 입수하는 문헌의 내용이 그들의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체가 정보서비스기관에 정보조사를 의뢰할 때는 자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정보소스는 이미 이용한 후 마지막으로 전문가관에 그들의 정보요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검색 결과는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라야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정보서비스의 실체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만족할 만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되려면 정보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바탕아래 정보탐색을 하고, 그 결과 얻어지는 문헌은 일정 수준까지 분석되어야 한다. 키워드에 의하여 탐색되는 문헌이 아닌 새로운 문헌리스트를 만들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산업기술정보원의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요구하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가장 많고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것'과 '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자가 각각 그 다음의 순서이다.⁶⁾ Kiniti-IR을 통하여 산업기술정보원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한 결과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문헌이 많지 않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조사를 의뢰하여 산업기술정보원의 주제 전문가들이 탐색, 제공한 문헌리스트의 유용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서비스

6)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인지도 설문조사 분석보고 (1995. 9) 미간본 내부자료. 산업기술정보원 회원서비스팀이 전국의 237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것임.

기관이 정보의 수집량을 늘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어떤 유형의 자료를 더 수집할 것인지의 분석과 일치 문헌 탐색 후 생산되는 자료를 의뢰한 조사요구서와 대조하여 사용목적 등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정보량을 늘이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정보는 '제품 및 시장정보'이고 다음으로 '응용기술', '특허정보' 순으로 원하는 정보라고 보고 한다. 문헌에 나타나는 제품 및 시장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의 색인으로써 관련문헌을 탐색할 수 있지만 탐색결과가 요구한 주제와 얼마나 일치할 지는 의문이다. '응용기술'이란 어떤 기술의 원리, 이론을 토대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문이란 모두 그러한 특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보검색에서 양적문제와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특허정보는 정보의 특성이 다른 문헌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검색결과에 대한 적합성 혹은 정보량과 관련된 사항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요구가 많은 '제품 및 시장정보'에 대한 정보서비스는 개별 문헌에 대한 분석과정이 포함되지 않고는 늘 불만을 가져오는 정보제공이 될 것이다.

현단계 우리나라 산업분야 정보서비스의 현황을 알아 볼 목적으로 그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최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본다.⁷⁾ 정보 업수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으로 적합성, 신속성, 그리고 정보서비스 비용 순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보서비스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정보의 '적합성' 문제이다. 대기업은 정보수집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거기에서 각 사업팀마다 필요한 정보의 입수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그러한 사정은 아주 다르다. 정보관리 업무가 독립된 기능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더구나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적합성

7) 산업정보기술원, 앞의 글. 적합성(63.3%), 신속성(19.4%), 정보서비스 비용(3.8%)이라고 응답하여 적합성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정보서비스기관에 의뢰하여 입수하기를 원하는 정보는 많은 양의 유사한 정보보다는 오히려 적합성이 큰 적은 양의 문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서비스기관의 적합문헌 탐색과정에는 산업체가 바라는 정보를 선별하고 종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여과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또 다른 조사항목에서 정보의 입수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학회·협회 및 조합’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보센터와 국내외 정보통신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⁹⁾ 정보센터로 대표되는 정보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필요 할 때마다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조사결과로 중소기업이 단순히 정보수집을 망라적, 계통적으로 하지 않는다고만 지적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협회나 조합이 소속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정보를 충실하게 수집,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¹⁰⁾ 그럼에도 협회·조합이 가장 중요한 정보 입수처가 된다는 것은 정보의 ‘적합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이 펼치는 활동 범위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요구라는 한계가 협회나 조합에서 얻는 정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에서 적합성 문제는 몇 가지의 색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주제내용과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정보학 이론에서 말하는 적합성의 측정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요구된 한 주제에 관련된 적합한 기술정보 위에도 시장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제품개발의 동향, 사업 타당성, 국내외 시장현황 등이 포함되는

8) 산업기술정보원, 1996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1996. p. 16.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분석의 개념이 포함되는 서비스는 ‘정보분석’과 ‘사업타당성 분석’ 서비스이나 그 요구가 많지 않다고 한다.

9) ‘학회·협회 및 조합’(40.5%), 정보센터(16.0%), 정보통신망(11.4%)

10) ‘경제를 살리자’시리즈 중 ‘각종 조합 이권만 챙긴다’ 동아일보 (1993. 2. 20)

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정보분석 업무는 산업체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조사분석 서비스' 가운데는 정보분석 업무가 들어 있으나 중소기업체가 쉽게 이용하기에는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¹¹⁾

산업분야 정보서비스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정보의 적합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보분석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주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조사 의뢰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해로 어떤 자료를 조사할 것인지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조사주제 관련 산업분야의 산업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¹²⁾ 다른 하나는 다양한 산업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조직체에서 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정보요구를 미리 분석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주지 정보서비스는 그것만으로도 산업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어질 개별 정보요구의 발생을 유도한다. 결국 정보빈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경영활동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만족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체 정보서비스체제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다른 체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요소인지를 알아 본다. 그 대상은 섬유산업분야 조합과 협회의 중앙기구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분석한다.¹³⁾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내부자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수한다.

- 11) 산업기술정보원, 1996 정보서비스 이물안내, 1996. p. 16. '정보분석'서비스는 기본료 10만원에 인건비: 1일 6만원, 출장비: 1일 5만원, 기타: 소정 규정요금, '사업타당성 분석' 서비스는 기본료가 30만원 이다.
- 12) 해외정보기관 시리즈(22): "캐나다 과학기술정보연구소" 정보관리연구, 26권 3호 (1995. 9), pp. 100-109.
- 13)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지원기관이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994. p. 116-122.

II. 산업분야의 정보수집 경로

산업체에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수집한 정보가 더 이상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보는 분석과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생산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제작하는 여러 유형의 자료도 어떤 주제분야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문헌의 분석정도가 이들 정보가 개별 산업체의 특정 현실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수집 방식이 아니면서도 상당한 부분을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수집하는 정보의 현장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분야의 정보수집 방식을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로 구분하여 살펴 본다.

1. 비공식 경로

산업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직무내용에 따라 그들이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정보매체도 다르다는 사실은 많이 밝혀지고 있다. 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사람과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들은 정보수집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도 부설연구소가 설치되고 연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현장과 관리업무까지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연구부문보다 현장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보수집 행태는 기술자들이 나타내는 유형과 비슷하다.

중소기업의 산업활동은 기술혁신 보다는 대체로 현행 방식에 따른 생산과 판매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정보의 필요성도 일상 문제의 발생

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제기되는 것이다. 기술혁신은 종래의 생산방식에 어떤 새로운 기술요소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보를 분석하고 체계화시켜 개별 업무과정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체의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개별 기업체내의 기술과 경험으로 가 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결방안을 누가 알고 있는 지 또는 어느 자료에 해결할 방법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비공식 경로를 통한 정보는 선정된 정보, 평가 통합된 정보, 실용 목적으로 변환된 정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 신속한 정보 등의 특성을 지닌 다.¹⁴⁾ 중소기업의 산업활동 가운데 필요로 하는 정보의 특성과 너무나 일치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정보유통 현황을 조사한 몇 가지 결과에서 비공식 경로의 이용 부분을 살펴 본다. 수도권 지역의 32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수급 현황 및 정보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 보고서 이다.¹⁵⁾ 정보입수 를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원으로 전문서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동종업체), 거래기업,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의 순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는 결과이다. 이들 정보원이 중소기업으로서는 가장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서적이라는 지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 쳐서 입수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산업체 종사자들이 서점을 통하여 입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서적을 제외한 다른 정보원은 크게 비공식 경로에 의한 정보수집이라 말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정보의 소재파악, 자원 부족, 정보의 유무, 비공개 사례, 장시간 소요, 비용 과대지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정보서비스기관이 중소기업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14) 최성진, 조인숙, 정보봉사론, 아세아문화사, 1992. pp. 48-50.

15) 서정대, 중소기업 경영과 정보화, 중소기업연구보고서 92-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2. 12. pp. 75-82.

정보서비스기관의 전문성과 정확한 수요파악이 요구되며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어렵게 수집한 정보가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극히 낮다.¹⁶⁾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실제 이용가능한 정보의 부족, 정보에 대한 이해, 활용능력의 부족 등 이라고 표시하고 있다.¹⁷⁾ 정보서비스기관들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요 및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매체의 유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기술정보는 때와 장소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체가 외국의 기술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일과 정보의 선정, 평가, 통합이 이루어져 실용성을 가질 수 있게 변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산업기술정보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 평가 자료를 정보분석의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¹⁸⁾ 우리나라 산업분야 정보서비스기관의 중심이 되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서비스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산업기술정보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서비스에는 산업체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장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검색하고 필요하면 원문헌을 입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보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아마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만으로는 정보수집을 하기가 어려워 전문가에게 주제조사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할 주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보통의 방법으로는 검색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16) 앞의글. 수집된 정보에 대한 만족도(10.6%)

17) 앞의 글. 이용가능한 정보부족(65.1%), 정보의 이해·활용능력의 부족(32.5%)

18)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인지도 설문조사 분석보고 (1995. 9)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심층 정보분석 과정이 요구된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로는 '제품 및 시장정보'의 요구가 가장 많다고 조사 되었다. 산업체는 신제품, 신기술을 생산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신제품에 관련된 정보는 중요하게 여긴다. 신제품의 시장성, 기존 제품과의 경쟁력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결국 산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생산과 판매정보라는 것이다. 제품 및 시장정보는 몇 가지 문헌만 입수하면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성질의 정보가 아니다. 키워드 몇 가지의 조합으로 간단하게 검색해 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이다.

정보입수처로 협회나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정보센터, 정보통신망 등 이라고 하지만 각 각에 대한 응답 회수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협회나 조합이 회원기업체에 필요한 산업정보를 체계적 또는 망라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산업체의 주요 정보 입수처가 된다는 사실은 결국 정보의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지원기관의 업무는 사실 개별 산업체의 산업활동의 범위, 수준, 정도 등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의 적합성 문제가 정보원의 이용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른 조사에서도 정보 이용시의 고려 대상은 신속성, 정확성, 다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2. 공식 경로

중소기업이 공식 경로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하는 활동은 정보서비스기관이나 산업지원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가장 흔한 방법이다. 국내외의 문헌수집을 통하여 필요한

19) "Kiniti 정보서비스 무엇이 불만족인가", Kiniti 뉴스, 제27호 (1996. 1), p. 2.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분야 정보서비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이용회원에는 중소기업이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 비율로 보면 24%에 그치고 있다.²⁰⁾ 산업기술정보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지원기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회원은 많지 않다. 섬유산업분야의 정보서비스조직인 TESIS의 회원수는 480개처,²¹⁾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EIAK-NET의 회원은 90개처 정도이다.²²⁾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은행, 한국무역협회의 KOSIS,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TRA-NET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산업지원기관 중에서 협회나 조합의 전국적 조직인 중앙회, 연합회 수준에서는 기관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경영 및 기술정보가 여러 형태로 수록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으나 그 종수는 많지 않다. 협회와 조합이 중소기업의 주요 정보입수처라고 조사되고 있다. 결국 산업체는 이들 기관으로 부터 비공식 매체를 통하여 정보입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분야별 협회와 조합이 회원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조사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은 많다.²³⁾

중소기업에서 정보수집을 위하여 공식 경로의 이용이 많지 않은 이유로는 경비문제 보다는 정보의 적합성과, 산업활동이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체제가 아닌 것과, 정보관리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와 정보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20) 산업기술정보원, 1996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p. 30. : 중소기업이 46.3%(4815개처), 개인 34.9%(3631개처), 대기업 9.2%(957개처), 대학 2.0%(205개처) 등이다.

21) 섬유정보센터 C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사됨. (1996. 5. 17)

22)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J실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사됨. (1996. 5. 17)

23)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정보화와 지역경제 발전, 1996. pp. 16-17.

Ⅲ. 산업지원기관의 정보서비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정보센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에서는 적합성 문제에 언제나 관심을 두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요구와 관련있는 정보는 모두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새로운 정보로 변형시킬 인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문헌은 어느 특정 상황을 해결할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정보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심층 분석된 결과물이 아닐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와 문헌의 내용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키워드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체 정보이용자가 바라는 적합성의 개념은 해당 정보의 현실 적용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통합 평가된 정보, 실용 목적으로 전환된 정보를 원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정보의 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산업별 지원기관이 여러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이들 기관들은 일정 부분의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실제와 가능성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정보센터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알아 본다. 정보매체의 생산과정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구조, 매체의 종류에 따라 수록되는 정보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본다.²⁴⁾

섬유정보센터는 섬유정보의 공급을 위한 온라인망 운영, 국내의 섬유정보의 수집, 제공, 섬유산업 정보화 지원, 섬유정보 간행물 발간, 섬유통계 생산, 자료실 운영 등의 정보사업을 하고 있다.²⁵⁾

24) 통상산업부의 산업분야에 대한 산업정보유통체제의 구축에 관련된 정책의 일부로 산업별 조합, 단체의 기능을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에 강화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순 정보교류 정부위탁 업무 중심의 기능을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산업기술정보원, 앞의 책, pp. 23-24.

25)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4 섬유산업디렉토리, 1995. p. 11.

1. 인쇄형 자료

섬유정보센터가 간행하는 출판물은 섬유산업분야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통계자료의 생산이 많다. '섬유산업 통계월보', '섬유연감', '섬유산업통계', '섬유산업편람', 한국섬유산업의 물동분석', '섬유소재 편람' 등이 그것이다. 섬유산업분야의 국내외의 기술과 경영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체에 제공하는 매체로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섬유뉴스'와 계간인 '섬유기술정보'가 있다. 이 두 가지 매체가 섬유산업분야의 기술 및 경영에 관련된 현황분석정보라고 할 수 있다.

'섬유뉴스'는 주간으로 발행되며 일회에 3000부를 발행하고 '96년부터는 연간 5만원의 구독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외동향, 국내동향 및 섬유산업분야 소식으로 구성된다. 섬유산업분야의 국내외의 동향을 간략하게 산업체에 알리는 자료이다. '일주일간 국내외에서 일어난 일과 섬유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고 '섬유뉴스'지의 정기구독 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다. '섬유뉴스'의 정보원은 일본, 홍콩 등에서 간행하는 외국 섬유신문, 연합통신, 국내 섬유신문, 한국무역협회 간행 '일간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81개 무역관에서 매일 수집하여 발간하는 '일간 해외시장' 등 시사성 있는 자료에서 섬유산업분야의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한다.²⁶⁾ 주로 신문기사를 발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헌의 길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떤 기사를 선정할 것인지는 산업체에 유용한 '섬유뉴스'지가 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섬유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섬유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중소섬유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선정, 발췌, 요약하여 제공하는 정보매체이다. 수록되는 기사마다 정보출처를 밝히고 있어 '섬유뉴스'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때 원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특정 산업분야에서 주간으로 정보속보를 제공하는 체제는 '섬유뉴스'가 유일하다.

26) 섬유정보센터의 C부장과의 면담, (1996. 5. 17)

‘섬유기술정보’는 섬유산업분야 기술부문의 정보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섬유정보센터가 구독하는 약 300종의 국내외 섬유분야 정기간행물의 아티클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 적합한 기술정보를 발췌, 요약하여 수록하는 매체이다. 수록되는 정보는 화섬, 제직, 편직, 부직포, 염색 가공, 봉제 등 섬유산업의 각 부문을 고르게 다루고 있다. ‘섬유기술정보’는 계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속보성은 약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이용가능 할 정도로 원문헌을 요약하고 외국문헌은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되는 문헌은 TEXTIS의 ‘섬유 간행물 기사속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소개하고 있다.

섬유분야 주제배경이 있는 전문가들이 산업현장의 기술수준을 이해하고 그 현장에 적용가능한 국내외 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분야 정보서비스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책자형이므로 수록되는 기사가 제한되고 계간으로 간행되므로 속보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정보전달 시대에서도 전통적인 정보매체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된다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무엇을 그렇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산업체에 정보제공을 할 목적으로 국내외 산업정보를 분석, 요약 하여 수록하는 매체는 거의 없다. 한국무역협회의 ‘일간무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 등이 있으나 이들 매체는 무역부분만 한정해서 서비스하는 간행물 이다.²⁷⁾

보통 산업지원기관이 기관지 성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면서 그 내용 속에 국내외의 신제품, 신기술의 소개와 산업계 소식, 제품 수출 동향 등을 수록하여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들 간행물은 섬유정보센터에서 간행하는 두 가지 정보매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여러 산업지원기관의 기관지는 각 산업분야의 최근 국내외 산업동향을 산업체에 일정 부분 알리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산업체가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을 하기는 어렵다. 섬유정보센터의 ‘섬유뉴스’와 ‘섬유기술정보’는 산업동향과

27) 상공회의소, 산업·기술 정보조사 실무지침서, 1995, pp. 101-104.

산업정보의 분석 결과물을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의 분석과정은 정보의 선정은 물론 산업체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단순히 주제와 관련된 몇 편의 문헌을 검색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다.

주요 산업지원기관이 간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전자진흥',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기계공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과 '종합기술정보' 등이 있다.

2. 데이터베이스 형태 자료

TEXIS(Textile Information Service) 정보시스템은 6종의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4종의 정보원을 추가시킬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섬유류 수출입통계 정보', '국내 섬유업체현황 정보', '국내외 섬유전시회 정보', '국내 섬유업체 인사록 정보', 섬유관련 문헌정보, '섬유 간행물기사 속보' 등이다. 추가시킬 정보는 인력정보, 투자동향, 정책정보, 통계정보 등이라 한다.²⁸⁾

'섬유류 수출입통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섬유류의 수출, 수입실적을 월별, 품목별, 국가별, 지역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책자형 통계자료집보다 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국내 섬유업체현황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2만여 섬유산업체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주 생산품,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섬유업체현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정보은행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

28) 섬유정보센터, TEXIS 이용 안내서, 1996. pp. 1-2.

의 상품정보, 전문인력정보, 시험연구장비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²⁹⁾

‘국내외 섬유전시회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에서 개최 예정인 섬유관련 전시회 정보를 메뉴방식으로 검색 가능하다. 전시품목, 전시회 성격, 주최자 사항 등 전시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참가 예정자에게는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비참가자에게는 산업동향 정보를 주는 것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많은 정보를 전시회를 통하여 입수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전시회 개최 예정정보이기 때문에 입수된 정보는 신속하게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 추가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쇄 매체로써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섬유업계 인사록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섬유업계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한다. 주소, 학력, 경력, 직장, 상훈, 저서, 특기 등 개인신상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인사록 정보도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정보은행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더 충실한 정보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섬유관련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WTA(World Textile Abstract, 영국의 Shirley Institute 제작)정보, 섬유화학(Cheical Abstract 중에서 섬유분야의 문헌을 발췌), 섬유특허, 소장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TTD(Textile Technology Digest, 미국의 Institute of Textile Technology 제작)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 WTA 정보는 매월 자기테이프 상태로, TTD 정보는 연간 2회씩 CD-ROM 형태로 입수하고 있다. 섬유화학 정보와 섬유특허 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중에서 섬유분야에 관련된 문헌과 특허문헌만 모아서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은 서지사항과 목차를, 정기간행물은 구독현황을 입력하고 있다.

29)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은행 안내서, 1996. : 지역내 5인 이상 제조업체의 현황, 대학교수, 정부기관, 기업연구소 연구원 등 연구인력, 대학 및 연구소 기기 보유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96년 7월까지 대구·경북 : 진남·광주 : 충북, 충남지역에는 완료되었다.

‘섬유간행물기사 속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섬유관련 신문, 연속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의 기사를 입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다. 신문기사는 타이틀과 기사내용을 요약하고, 국내외 연속간행물과 보고서는 주요 목차를 모두 입력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아티클 가운데 일부는 그 내용이 분석, 요약되어 ‘섬유뉴스’와 ‘섬유기술정보’에 수록되는 것이다.

앞으로 TEXIS에 수록 예정인 정보는 외국 주요 국가의 섬유통계, 국내외 섬유류 생산, 고용, 시설통계, 섬유업종별 구인, 구직정보, 섬유산업 해외투자, 섬유산업 정책과 지원제도 정보 등 이다.

산업지원기관으로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은행’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EIAK-NET 등이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KOSIS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TRA-NET도 산업분야의 정보서비스이나 무역관련 정보에만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³⁰⁾ 위의 두 산업지원기관의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정도이다. 국내외 산업정보를 망라적,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한 수준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다.

IV. 결 론

산업분야에서의 정보의 필요는 여러 부분의 산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과 기술이나 경영부문을 혁신하여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의 생산과 기업에 이익을 남기는 경영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목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산업정보서비스에서는 개별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30) 상공회의소, 앞의 책, pp. 101-104.

만 어떤 정보서비스기관도 그 많은 개별 산업체의 깊은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각 각에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산업분야별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산업분야별 정보서비스가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원리를 구명하고 있는 문헌일지라도 여러 유사한 문헌을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성을 부여하고 개별 산업체의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분석과 종합은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여러 문헌 가운데 검색원리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검색하고 약간의 분석과 종합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도의 분석이 가해진 정보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많은 비용이 든다.

산업정보를 포함하는 전국적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에 관한 구상이 정부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진 바 있지만 아직도 어떤 계획에 따라 정보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의 기술정보부서가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해당 주제분야의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처리, 배포 등을 전담하게 하는 구상도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 구상은 실행되지도 않았지만 처음부터 산업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유통시스템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다. 연구소의 연구원을 위한 자료와 중소 산업체에 이용될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또한 정보분석의 정도에 있어서도 양 그룹간에는 상당히 달라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정보서비스는 산업기술정보원이 여러 기관명으로 바뀌면서 내려오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설립 초창기부터 지역별 정보서비스를 강조해 오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1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로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각 지역 산업체의 상품정

보, 전문인력정보, 시험연구장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보자원화 시키고 있다.

국가의 산업정보유통체제의 체계적 구축 방안에는 지역별, 업종별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별 체제는 산업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산업분야별 체제의 운영은 협회나 조합에 정보서비스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³¹⁾

정부에서도 산업기술정보원의 오랜 기간 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 경험으로 지역별 정보서비스 체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센터의 존재가 컴퓨터나 통신망의 발전으로 정보원과 이용자간의 거리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 정보센터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보분석 업무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정보유통 시대에서 키워드에 의한 정보검색은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이용자 자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이용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 방안의 하나로 산업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보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비교적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산업체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섬유정보센터의 기능을 분석 한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산업별 정보서비스체제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인쇄형 자료인 주간 '섬유뉴스'는 섬유분야의 모든 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요약하여 인쇄매체로서는 신속하게 매주 간행한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과 관련을 많이 맺고 있는 국가의 산업현황을 빠르게 알려주므로써 산업체는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섬유기술정보'는 섬유분야의 기술발전에 관련된 정보를 국내외의 연속간행물에서 찾아 분석, 요약하고 있다. 아무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라도 개별 산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현장 적용성이 이미 검증된 기술만이 소개되고 있다. 정보의 분

31)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정보화와 지역경제 발전, 1996. pp. 20-24.

석, 요약, 해석 등 정보서비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간행빈도를 월간 수준으로 올리는게 문제점이다. 위의 두 가지 정보매체는 온라인 정보전달 시대에서도 인쇄형 자료의 유용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는 6종으로 섬유류 수출입통계 정보, 섬유 산업체 현황 정보, 국내의 섬유전시회 정보, 국내 섬유업체 인사록 정보, 외부기관에서 제작된 섬유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섬유분야 연속간행물의 기사 속보 등이 그것이다.

섬유류 수출입통계 정보외에 외국 주요 국가의 섬유통계, 국내의 생산, 고용, 시설통계 등이 추가되면 완전한 통계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섬유산업체현황 정보와 국내 섬유업체인사록 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산업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더 충실한 산업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섬유전시회 정보는 전시회 개최 예정지, 전시품목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하여 외국 전시회의 참가가 실제로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정보서비스이므로 그 유용성이 더 크다.

섬유분야 대표적인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와 섬유화학 데이터베이스, 섬유분야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등 외국에서 생산되는 섬유산업정보를 거의 완전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섬유정보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하고 있다. 섬유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내의 신문, 연속간행물, 연구보고서를 입수 즉시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간행물의 목차를 소개하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Media Development for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

Yong-gun Kim*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ing an organizational model for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 applicable to industrial supporting organization in every industrial sectors. An emphasis is placed on the discussion of the appreciation of industrial climate. Raw data is easily accessible, but industry requires judged, evaluated and assessed information. The case of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is used.

The proposed industrial information service model consists of the following elements.

Managerial information is frequently published, assessing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and its implications on products development.

Technical information is less frequently published, assessing from serials subscribing for industrial supporting organization.

Online information system could be adopted. Database such as statistics, personnel, industrial premises, exhibition, bibliographic are desirable.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